

韓國獸醫人物事典 발간을 준비하며



양 일 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의학박사(생리학)
 yang2740@gmail.com

지난 100년간 한국 현대수의학 역사를 되돌아보면 파란만장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많은 수의사들과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대한수의사회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그리고 각 대학을 중심으로 편찬된 사료들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인물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韓國獸醫史學硏究會(회장:신광순)와 대한수의사회(회장:김옥경)는 수의영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韓國獸醫人物事典”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한국수의사학연구회는 우리 분야에서 지역을 대표할만한 분 10인(강병규, 김무강, 김옥경, 김우호, 김종섭, 박근식, 백영기, 이원창, 정영채, 탁연빈)의 자문위원단과 영역별로 참여하는 실무위원 7인(김선중, 박종명, 심유정, 양일석, 우연철, 이항, 천명선)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한 후 1차 편집위원회(2012년 11월29일)를 개최하였다. 편집위원회에서 인물선정 기준 및 집필방법에 대한 일차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해 나가 고자 한다.

우리 영역에서 헌신 하신 분들은 수 없이 많지만 본 사전은 우선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수의 영역에서 활동하다 작고 하신 분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등재될 인물의 조사 발굴 단계이다. 한 분이라도 더 등재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지만, 대한수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진행 사항은 향후 대한수의사회 지면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며, 등재 인물 관련 자료 제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해방 후부터 수의 영역에서 활동하시다 작고하신 분 (해외 포함)
- 방법 : 추천하시고 싶은 등재인물후보의 기본 인적사항과 추천하시는 분의 연락처(전화, 이메일, 주소)를 아래 연락처로 보냄 ※**특별히 대학이나 공직에 계시지 않았던 분의 추천이 중요함**
- 편집의 기본 원칙
 - ① 기본 인적사항 : 사진(반명함판, 가능하면), 출생년도(월일), 사망연도(월일), 출생지, 주요 학력, 경력을 포함
 - ② 대상인물 별로 원고 작성자의 이름을 말미에 밝히며, 원고작성이 불가능한 분은 책의 말미에 일람표로 대신함
 - ③ 기타 자세한 편집방향은 지면을 통하여 안내드릴 예정
- 연락처
 - ① 양일석
 - 이메일 : isyang@snu.ac.kr
 - 전화 : 010-8224-3461, 070-8623-3461
 - 주소 : 서울 동작구 사당로 300 (이수자이) 102동 1301호(우 156-816)
 - ② 천명선
 - 이메일 : jdchun@snu.ac.kr
 - 전화 : 010-2752-2437 (事)02-880-1184
 -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번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85동 511호 獸醫史學室(우 151-742)

한국수의사학연구회 안내

근대 수의학이 한국에 자리 잡은 지도 100 여년이 지났다. 우리는 지금 수의사와 수의학의 역사를 돌아보고 전통 문화에서 수의술과 수의윤리 등의 가치를 발굴함은 물론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대면하고 있다. 수의학 관련 분야인 의학, 농학(축산학), 간호학, 보건학에서는 이미 본연의 역사와 정체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조직적, 학문적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수의사학 연구’의 현황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한국수의사학연구회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 4일 국내 최초로 열린 국제수의사학심포지움에서 11 명의 발기인의 동의를 얻어 발족하였다. 이후 창립준비회의(2012년 4월 18일)를 통해 신광순(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명예교수) 회장을 추대하고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이어 연구회 정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대한 수의사회와 함께 ‘한국수의인물사전’ 편찬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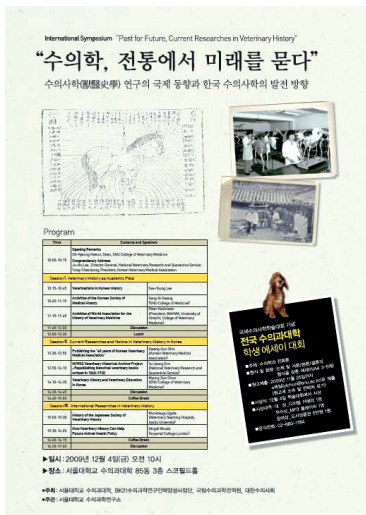


사진 1. 2009년 국제수의사학심포지움 포스터와 사진

한국수의사학연구회는 국내 유일의 수의사학 관련 학술모임으로 향후 다양한 학술사업과 편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국제수의사학 학술대회에 국가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며, 이미 조직되어 있는 중국 및 일본 수의사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원서와 정관을 보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 사료실 천명선 박사 (02-880-1184, jdchun@snu.ac.kr)